

Issue Brief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No.46]

발행처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발행일 : 2020. 9. 18 | 발행인 : 민무숙

제주지역의 북경행동강령 이행 성과와 향후 과제

고지영 선임연구위원¹⁾

목 차

1. 연구 목적
2. 북경행동강령 및 제주지역 성과 점검 개요
3. 북경행동강령에 비추어 본 제주지역 성평등 현황과 성과
4. 향후 과제 및 제언

1) 공동연구자 : 강경숙 · 신승배 · 이연화 · 이해음 연구위원



1. 연구 목적

- 북경행동강령은 1995년 제4차 유엔(UN) 세계여성대회에서 성평등 및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채택한 국제적 아젠다로서 역대 가장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성평등 과제를 제시하였음
- 특히 북경행동강령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핵심 정책 전략으로 자리 잡은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짐
- 2020년 북경행동강령 선언 25주년을 맞아,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성평등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함

2. 북경행동강령 및 제주지역 성과 점검 개요

성평등 & 여성 권한 강화 위한
12개 주요 영역 및 전략 목표 채택

- ① 여성과 빈곤
- ② 여성과 교육 · 훈련
- ③ 여성과 건강
- ④ 여성 폭력
- ⑤ 여성과 무력 분쟁
- ⑥ 여성과 경제
- ⑦ 여성과 권력 및 의사결정
- ⑧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 ⑨ 여성과 인권
- ⑩ 여성과 미디어
- ⑪ 여성과 환경
- ⑫ 여아

- 북경행동강령은 12개 주요 영역에서 여성에게 차별적인 사회구조적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한 전략 목표들을 채택하였음
- 제주지역의 성과 점검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12개 영역 중 아래 7개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교육훈련, 건강, 폭력, 경제, 권력 및 의사결정,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인권
 - 위의 7영역에서 폭력과 인권, 권력 · 의사결정 및 제도적 장치 영역은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점검함

-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2020년 7월~8월 사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내부 TF팀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정책성과 점검은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자료(연도별 시행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체감형 양성평등정책 프로젝트 「제주처럼」 (2015~2022)), 제주특별자치도지 등의 정책 및 문헌 자료 검토, 지역사회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루어졌음
-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2020 성평등 포럼(8.28)에서 일차적으로 발표²⁾ 되었고,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본 연구의 결론에서 논의 및 제언으로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2) “북경행동강령 선언 25년, 제주지역 성과와 과제”. 「2020 성평등 포럼 : 국제 성평등 이슈에 따른 지역 성평등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공동 주최(2020.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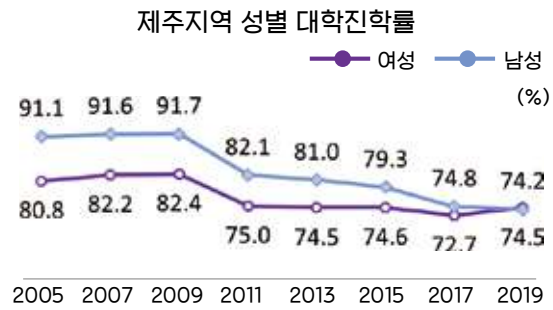
3. 북경행동강령에 비추어 본 제주지역 성평등 현황과 성과

- 본 절에서는 북경행동강령의 <교육훈련>, <건강>, <경제>, <인권·폭력>, <의사결정·제도적 장치> 영역에서 제시한 주요 전략목표별 제주지역의 성평등 현황과 성과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1 교육·훈련

■ 교육기회의 동등한 접근

- 제주지역 성별 교육기회는 거의 동등해졌다고 볼 수 있음. 초·중·고 진학률에 남녀 차이가 거의 없으며, 대학 진학률의 경우 2019년 여성이 남성을 앞지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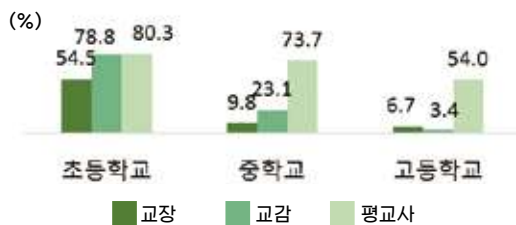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여성의 교육기회가 향상되었지만 전공 선택의 성 격차는 여전히 존재함. 2018년 도내 특목고 여학생 비율은 과학 분야 29.8%, 외국어 분야 65.1%로 계열별 차이가 뚜렷함. 전공과 진로 선택의 성별 격차 해소 노력이 필요함

■ 교육자원 및 교육여건의 평등

제주 초·중·고등학교 직위별 교원 비율(2018)



제주 고등교육기관의 직위별 여성 교원 비율(2018)



- 제주도내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여성 교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교육 자원의 성평등이 향상되고 있음. 그러나 상위직위일수록 여성 비율은 여전히 낮아 승진, 채용 등 교육자원과 여건의 성평등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의 평등

- 제주여성의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개관(2010, 前제주도 여성회관(1969)),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2009),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2014), 여성 새로일하기센터(3개소) 설치,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설치(2개소), 건강가정지원 센터 설치(2개소) 등으로 다양한 여성 대상별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 기회가 확대되었음
- 2019년 제주도민의 평균 교육년수는 여성 10.9년, 남성 12.7년으로 성 격차가 여전히 남아 있음. 고령 사회 및 디지털 시대를 맞아 여성 교육훈련 인프라 및 프로그램의 혁신 노력이 요구됨



2 건강

■ 보건의료와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증진

- 제주도 인구 10만 명당 보건의료 기관수는 2007년 102.1개에서 2018년 124.3개로 증가함
-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에서 여성은 2012년 병·의원 매우 불만족 13.1%에서 2018년 8.7%(제주특별자치도, 제주사회조사)로 낮아졌음. 성인지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 강화

- 5가지 건강관련 삶의 질 지수(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생활, 통증/불편, 불안/우울)(기준 1점)를 살펴 보면 여성의 삶의 질 지수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나 성별 격차는 지속되고 있음
- 제주도는 임산부 및 여자 중학생 대상 「여성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평가 우수 지역사례(2008)로 선정된 바 있고 특수직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해녀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지역 내 여성의 운동시설 접근성에 대한 인식은 하향 추세이고, 남성보다 낮음. 일상생활의 체감도 높은 예방적 여성건강증진 정책이 필요함

제주지역 성별 삶의 질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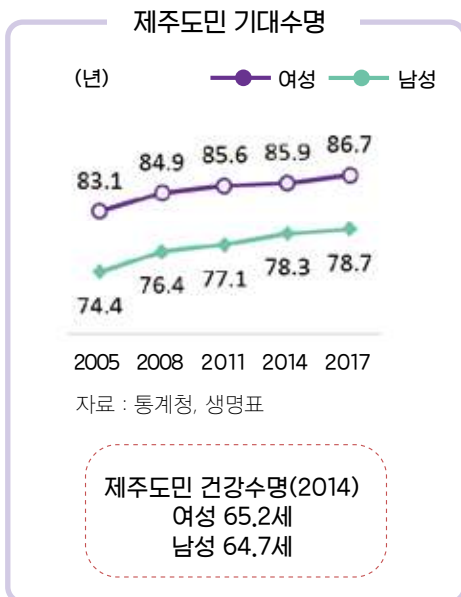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시스템

제주도민의 성별 운동시설 접근성 인식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건강통계
주: 최근 1년간 거주지에서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쉽게, 또는 매우 쉽게 찾을 수 있는 응답비율임

■ 여성건강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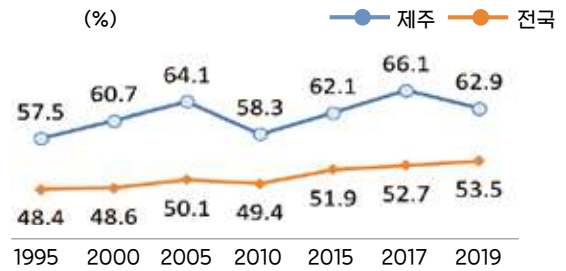
- 제주도민의 기대수명은 남녀 모두 증가추세이고, 2017년 기준, 여성 86.7년, 남성 78.7년으로 여성의 수명이 약 8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도민의 건강수명은 2014년 기준 여성 65.2세, 남성 64.7세로 남녀 모두 기대수명보다 현저히 낮음
- 기대수명에서 건강수명을 뺀 '장애여명', 즉 만성질환이나 장애에 시달리는 소위 '병치레 기간'은 여성 20.2년, 남성 14.6년으로 여성이 길게 나타나 예방적 '여성건강 증진' 정책이 국민건강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임을 드러냄
- 성별 건강 실태 조사 연구, 성인지적 건강 정보의 생산 등 성인지적 건강정책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3 경제

■ 제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 제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5년 57.5%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60%대를 유지하며,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전국 및 제주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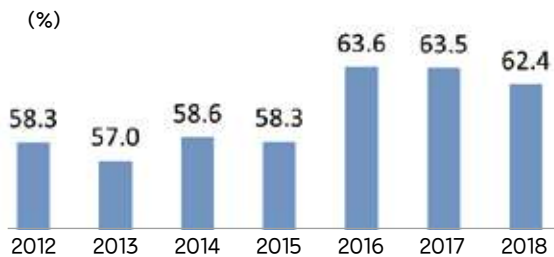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여성 취업 지원 정책

-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지원 : 제주 여성 새로일하기센터(3개소) 등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창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2017년 2,189명, 2018년 1,793명, 2019년에는 1,750명).
- 제주지역 여성 공동체 창업 활성화 : 2016년부터 '여성 공동체 창업 활성화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을 자체 재정으로 추진하여 여성 창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공동체 발굴, 교육, 컨설팅, 창업자금 및 사후관리 지원(2016년~2019년 16개팀 창업 지원)

■ 노동시장의 고용 여건 평등

제주지역 임금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성별 임금격차 : 제주지역 성별 임금격차는 2008년 58.5%에서 2019년 67.4%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구조적 문제로 남아 있음

● 향후 제주도내 여성 근로자의 종합적 근로환경 실태 파악 등을 통하여 임금 격차 등 고용 여건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제주지역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일·가정 양립 근로 환경 조성

● 일·가정 양립 문화 활성화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설치(2016~)를 통하여 가족친화 인증기업 증가(2019년 64개사),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증가(2019년 62개팀) 등 일·가정 양립 문화 및 가족친화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 육아휴직 이용 증가 :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육아휴직 수급자 수가 증가추세로, 향후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제주지역 육아휴직 수급자 수 변화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4 인권 · 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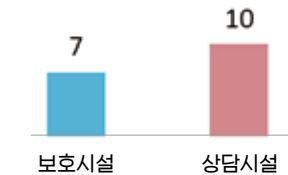
■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대책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여성폭력 상담 건수 및 지원건수 증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상담시설 증가 :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센터(2015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2019)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이 증가하여 피해자 보호 및 상담 지원 서비스를 확대되고 있음

제주지역 여성폭력 상담 건수 및 지원 건수(건)



제주지역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상담시설(2020)(개소)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통계

- 제주도는 성폭력 발생 증가, 여성의 강력범죄 피해 비율 증가 등으로 안전 분야 지역 성평등 수준이 2018년 중하위권(12위)으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환경 조성 정책이 강화되어야 함
 - 제주지역 연간 성폭력 발생 건수 : 2006년 183건 → 2018년 496건
 - 강력범죄 피해자의 여성 비율 : 2008년 80.6% → 2018년 86.4%

■ 여성 인권 · 폭력에 대한 교육 및 연구

- 제주도는 2015년부터 도민 대상 성평등(성인권) 및 폭력예방교육 사업, 전국 최초 지역 내 폭력예방 교육 전문강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전문 강사에 의한 교육 증가(2014년 8.2%, 2016년 37.4%)로 공공기관 폭력예방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 여성 인권 · 폭력 연구 확대 및 정책 개발 : 여성폭력 통합적 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2015), 여성폭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지역 조사(2017) 등의 연구조사를 진행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샵테드), 여성 안전 취약 지역의 CCTV 설치 등 시설 정비, 여성안심택배, 여성 1인가구 안전 시설 지원 등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

■ 성매매 피해자 지원 및 여성 인권 보호

- 제주도는 2007년부터 자체 재원으로 탈 성매매 직업전환 생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성매매 피해 여성의 탈 업소 촉매제 및 탈 성매매 실현의 전환점이 되고 있음 : 생계비 지원 기간 동안 검정고시, 아르바이트 등 근로활동 유지, 직업훈련 참여, 새로운 진로 진입 등

5 의사 결정 &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 공직 및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의 여성 대표성 강화 및 성평등 환경 조성

- 도의회 여성 의원,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도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 증가 등 정책 결정 과정의 여성 대표성이 강화되고 있음
- 마을별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참여율(34.7%) 확대 및 성평등 마을 조성을 위한 성평등 표준 규약 마련 및 컨설팅 등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의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

■ 지역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제도화 기반 정비

- 여성정책의 성 주류화 전략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목적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기본조례」 제정(2007.1) 및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로 전부 개정(2015.12.31. 시행)하여 추진 중임
- 「제1차~제5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9~2017)」 및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프로젝트 「제주처럼(2015~2018)」· 「더 제주처럼(2019~2022)」 등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 여성 및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구 구축 강화

- 1990년대 가정복지국 부녀복지과, 사회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를 거쳐 1998년 보건복지여성국으로 개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2006.7월)에 따른 여성정책특보 신설(2006년~2010년), 민선 7기 행정 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 신설(2018년~) 등 양성평등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가 강화 되어 왔음
- 부서별 성인지정책 전담 양성평등담당관 제도(2019년~) 도입을 통하여 도 및 행정시 부서별 양성평등 실행 목표 수립 및 성평등 우수사례 발굴 추진 등 양성평등 정책 기반이 강화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2000~2016) 및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2016~) 등 민관협업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협의 조정 기구 역시 강화되고 있음

■ 성 주류화 전략 추진 기반 구축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추진(2005년~) 및 조례 제정(2014.8), 성인지 예산 추진(2013년~) 및 조례 제정(2019.7), 성별영향평가위원회(2014년~) 등 성주류화정책 추진기반이 구축되어 왔음
- 1998년부터 `제주여성가족통계`, 2015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통계`로 변경하여 격년 발간함으로써 성평등정책의 기초자료를 구축·확산해 오고 있음
- `주요정책의 성인지적 관점 사전 검토 의무제`(2019년~) 등 제주도 자체적인 정책 개발을 통하여 도정의 성 주류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음



4. 향후 과제 및 제언

- 본 절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현황과 성과 및 정책 시사점을 바탕으로 제주사회의 성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영역별 향후과제와 종합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1 주요 영역별 향후 과제

1. 여성과 교육·훈련

■ 여성 고급 인적자원 양성 및 전공과 진로의 성별 분리 개선

- 다양한 분야 여성 박사학위 진출 등 지역 내 여성 고급 인적자원 양성 지원 강화
- 여학생의 이공계 전공 및 진로 선택을 위한 증등 및 대학 진로교육의 성인지적 개선
- 교육과정의 성 고정적인 내용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및 교사 성인지 교육 강화

■ 양성평등한 교육자원 확대 및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민·관·학 협력 강화

- 교육관리직의 여성 대표성 제고 및 대학의 여교수 채용·승진을 위한 정책 모니터링 강화
- 여성학 관련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민·관·학 성평등 거버넌스 조성 및 활성화

■ 디지털 사회 제주여성의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 인프라 강화 및 프로그램 혁신

- 생애주기별 성인지적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디지털 시대 성별 정보화 격차 해소
- 여성 취·창업 교육훈련 인프라 확대,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혁신 및 종사자 역량 강화
-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평생교육 수단 및 프로그램 강화 : 장애여성, 이주 여성, 고령 여성 등

2. 여성과 건강

■ 제주여성의 실질적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강화

- 제주여성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의 격차 원인 등 여성 건강 정밀 진단 및 대안 마련
- 생애주기에 맞는 신체적·정서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 고령사회 노년기 여성의 신체적·정서적 지원을 위한 건강증진정책 발굴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여성 건강 지원 정책 개발

- 농어촌 여성 및 해녀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 지역 특성을 고려한 힐링, 치유 등 여성 건강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여아와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심리적·정서적 건강 상담 지원 인프라 구축

■ 지역의 도시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한 여아와 여성 건강 의제 연구 개발

- 소득, 교통, 주거, 일자리 환경들이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 진단 등을 통한 건강 정책 개발
- SDGs를 향한 여아와 여성의 지속가능한 건강정책 연구

3. 여성과 경제

■ 여성 일자리에 대한 질적 개선과 지역특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청정 환경, 관광지 특성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제주형 여성 일자리 정책 연구 개발
- 디지털 및 플랫폼 경제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한 혁신적 여성 취·창업 지원 정책 강화
- 경력단절 여성 등의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취업 지원 교육 및 서비스 개선
- 취약 여성 등의 노동시장, 정보, 기술에의 접근성 제공 및 근로 환경 개선

■ 노동시장의 여성 고용 차별 해소 및 근로환경 개선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성평등 임금공시제 제도화 등을 통한 임금차별 철폐
- 비정규직 여성 노동환경의 성차별 해소 및 근로 복지 향상
- 제주여성의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 정책 연구 개발

■ 일·가정 양립의 제도와 문화 안정적 정착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프로그램 개발 강화
-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개선 지원
- 수놓음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사회적 돌봄 문화 확산

4. 여성과 인권·폭력

■ 여성 폭력예방 교육의 실효성 제고

- 여성폭력예방교육 및 성평등(성인지감수성) 교육의 실효성 제고
- 코로나19 비대면 사회의 교육 콘텐츠 및 교수법 연구 등을 통해 교육 내실화

■ 여성 폭력 및 인권 보호 관련 조례 개정

- 젠더폭력 변화 양상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보호 조례」 개정
- 디지털 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관련 조항 삽입

■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한 인권·폭력·안전 대책 지속 강화

- 제주도의 관광산업, 자연환경 등의 특징을 고려한 안전 체감도 향상 정책 개발
- 재난·재해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여성 및 아동의 안전을 위한 성인지적 매뉴얼 개발
- 안전교육 및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 확대를 통해 모두가 안전한 제주사회 구현

■ 성평등 의식 및 여성 인권 관련 데이터 축적

- 제주지역 성평등 의식 및 여성 인권 관련 정기적 조사



5. 의사 결정 및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 지역과 조직의 여성 리더 양성 및 성평등문화 확산 강화

- 성평등 마을 규약 확산 등 성평등마을 만들기 사업 내실화
- 공공기관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지역사회 여성대표성 강화 방안 마련
-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활성화('20년 9월 개소 예정)

■ 지역 성 주류화 거버넌스 모델 개발 및 운영

- 기존 공무원과 전문가 중심의 성평등정책 거버넌스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실행주체와 도민 참여 강화 방안 마련 및 성 주류화 실행 네트워크 구축·운영

■ 양성평등정책의 성주류화 전략 연계 강화를 추진체계 강화

-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및 지원 계획 수립 및 양성평등담당관 업무 공식화(업무분장표 명시) 등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활성화
- 성평등정책관, 예산담당관(회계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원기관 등 성주류화정책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

■ 성인지적 관점의 제주 여성의 삶 재조명 정책 강화

- 제주 4·3, 해녀, 신화, 생태환경 등 지역역사문화영역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적 정책 개발 활성화
- 제주여성 삶 연구 체계화를 위한 '지역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민선 7기 도지사 공약) 설치 및 운영 활성화

2 논의 및 제언

- 북경행동강령 선언 25년을 맞아 제주지역의 성평등 성과를 살펴본 결과 그동안 제주사회에 많은 진전이 있었음. 북경행동강령의 7개 영역을 중심으로 제주의 성과를 살펴볼 때, 특히 주목할 점은 단연 성평등 제도 기반 구축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음
- 제주는 여성정책의 기본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여성발전기본조례가 2007년에 제정되었고, 이후 성평등과 성 주류화를 위한 조례, 계획, 추진체계와 사업들이 꾸준히 강화되어 왔음
- 북경행동강령의 핵심적인 이슈가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이었음을 상기할 때, 북경행동강령의 아젠다는 끝나지 않은 과제이며, 이행을 위한 제주사회의 지속적 노력이 요구되고,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함

■ 성 주류화 제도와 정책의 지역사회 체감도 향상

- 제주지역 성 주류화 제도와 정책 기반의 구축은 북경행동강령의 핵심 전략인 '성 주류화'의 이행 측면에서 볼 때 단연 가장 괄목할 만한 정책성과라 볼 수 있음
- 성 주류화 전략의 목적이 사회에서의 실질적 성평등 향상과 여성의 권한 강화임을 상기할 때, 제주의 성 주류화 정책이 지역주민에게 얼마나 체감되고, 이를 통해 제주도민이 체감하는 성평등 실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실천과제 개발이 필요함

■ 생활 모든 영역에서의 성평등 향상을 위한 성 주류화 정책 연계 강화

- 북경행동강령의 주요 영역별 제주의 성평등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사회구조적인 성차별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이 드러남
- 도민의 성별 교육수준의 격차 해소, 전공과 직업 선택의 성별 분리 해소, 교사관리직 등 교육 자원과 여건의 성별 격차 해소, 성인지적 건강 통계와 여성 건강증진 정책 개발,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미래형 제주여성 일자리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혁신, 신종 젠더 폭력의 확산과 이에 대한 예방과 대응, 성평등에 대한 마을과 지역사회의 인식과 체감도 향상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향한 사회구조적 변화가 여전히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주도의 양성평등담당관 제도가 성평등 정책 추진의 실천적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부서별 성평등 실천 목표와 정책 개발, 담당자의 역량 강화 교육, 정책성과 평가 등 제도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함
 - 나아가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하여 성평등협의회를 비롯하여 교육 및 학계, 기업, 행정, 의회, 민간 기관·단체 간의 지속적 소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이 요구됨



■ 미디어, 환경, 무력분쟁 등 성평등 정책 지평의 확장

- 본 연구에서는 북경행동강령의 12개 영역 중 7개 영역을 중심으로 성평등 이행 성과를 살펴보고, 미디어, 환경, 무력분쟁 영역에 대한 논의는 누락되었음

● 여성과 미디어

북경행동강령에서는 미디어 영역의 성평등을 위해 1) 미디어 및 새로운 통신기술에 여성 참여와 접근성 증진, 2) 미디어의 여성에 대한 균형 있고 비정형화된 묘사 축진의 전략 목표를 채택하였음. 제주도(성평등정책관)에서는 성평등 미디어상 공모, 디지털 미디어(유튜브)를 활용한 성평등 크리에이터 채널 공모전 등의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음. 미디어는 정보 생산과 통의 핵심 매체이고 특히 온라인 매체와 콘텐츠가 다각화되는 사회에서 성평등한 지역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미디어와의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여성과 환경

환경은 국가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영역 중 하나이자 정책 분야를 아우르는 크로스커팅 아젠다임. 북경행동강령에서는 환경 분야의 성 주류화를 위하여 1)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 2)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에 젠더 관점 통합, 3) 개발과 환경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국제/국가/지역 차원의 기구 강화 또는 설치 등을 전략 목표로 제시하였음. 제주에서 환경문제는 도민 삶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이슈이지만 그동안 제주지역 환경정책의 성 주류화 노력은 미흡한 편으로 향후 환경 정책의 여성 참여 확산이 필요함

- 환경 · 에너지 · 개발 · 식품 · 식수오염 · 에너지 소비의 합리화 · 대중교통 · 환경과 건강 등과 관련한 각종 정책결정 과정과 위원회의 여성 참여
- 환경과 관련한 여성 전문 인력, 여성 지도자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 등

● 여성과 무력 분쟁

무력분쟁 영역에서 북경행동강령이 제시한 전략 목표는 1) 분쟁해결 과정에 여성 참여 증대 및 분쟁상황하의 여성 보호, 2) 비폭력적 분쟁 해결 도모와 분쟁상황에서의 인권 유린 감소, 3) 평화문화 조성을 위한 여성의 기여 도모, 4) 난민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임. 이러한 전략들은 제주 4·3의 상흔과 이를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고,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젠더 관점의 제주 4·3 재조명과 치유, 평화의 섬 제주를 위한 여성의 역할 조명, 성평등과 평화 이슈의 연계 등 분쟁과 갈등 분야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이 확산되어야 할 것임

